

Monthly

December 2025

Vol.570

Design

월간 디자인

www.design.co.kr

📷 monthlydesign

Since 1976

Special Feature 2025 한국 디자인 연감 Korea Design Ann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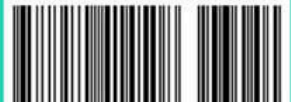
① 크리스 반 두인 OMA 아시아 총괄 파트너 ② 2025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리뷰

2025년 대한민국의 초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아카이브에서 한국 디자인 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gesdy



15,000원 | 9 788970 414508 03050





09

디자인 마이애미 파리 2025 리뷰

디자인 마이애미 파리가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파리 7구에 위치한 칼 라거펠트의 옛 저택, 호텔 드 메종에서 열린 이번 에디션은 컬렉터를 디자인 마켓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참여형 방식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른 페어와 차별화를 꾀한 이번 행사의 후일담을 전한다.

웹사이트 designmiami.com

관람에서 체험으로

앞서 말했듯 이번 에디션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보는 전시에서 경험하는 전시로의 전환이다. 제임스 드 울프 James de Wulf의 '공명하는 탁구대(Resonating Ping Pong Table)'가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탁구의 속도와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음향을 만들어내며 정원을 하나의 사운드 퍼포먼스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금속, 콘크리트, 소리라는 이질적 요소가 공명하며 관객의 행위를 예술적 리듬으로 치환한 것이다. 미국의 갤러리 더 퓨처 퍼펙트 The Future Perfect가 선보인 인도 디자이너 비크람 고얌 Vikram Goyal의 조각 '더 소울 가든 The Soul Garden'도 주목할 만했다. 황동으로 제작한 조각

구조물에 노르웨이의 향 연구가 시셀 톨라스 Sissel Tolaas의 향 기술을 접목해 관객이 작품 주변을 걸을 때마다 향의 농도와 색감이 미세하게 변화하도록 설계했다. 시각, 후각, 촉각을 중첩한 이 작품은 '디자인이 어떻게 감각의 시퀀스를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야외 조각품뿐 아니라 실내에 전시된 가구 역시 지난해보다 관람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작품에 대해 질문하고 만져보거나 직접 앉아보는 장면이 쉽게 목격되었다. 인터랙티브 작품의 약진은 기술과 관객의 결합을 시사한다. 현장에서 방문객은 수동적 관찰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변모했다.

감각과 신화의 회복

이번 에디션에서 또 한 가지 돋보였던 것은 동물 형상 작품의 귀환이다. 정원과 살롱 곳곳에 다양한 동물 형태가 등장했는데, 단순한 장식을 넘어 감정적 연결과 서사적 장치로 기능했다. 갤러리 미테랑 Galerie Mitterrand은 클로드 & 프랑수아 자비에 랄란 Claude & François-Xavier Lalanne의 대표작을 대거 선보이며 프랑스의 전통적 조형미를 계승했다. 날개 달린 토끼가 입구를 지키고, 정원을 거니는 듯한 거북이, 저택 내부의 브론즈 양 조각과 새 모양 조명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었다. 반면 젊은 작가들은 전혀 다르게 접근했다. 뉴욕의 갤러리 호슬러 버로스 Hostler Burrows는 스웨덴 디자이너 프리다 피엘만 Frida Fjellman의 작품으로 부스를 채웠는데 야생 동물 조각을 통해 자연의 거친 힘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장식적 유희가 아니었다. 자연과의 공존과 비인간적 시선을 사유하게 하는 매개체에 가까웠다. 동물은 인간의 감정, 상태, 윤리를 상징하는 존재로, 페어 정원에 설치된 대형 조각을 통해 관람객은 디자인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존재로 확장될 수 있음을 체감했다. 일부

작품은 재활용 금속이나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조형 언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 형상의 귀환은 감각과 신화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성 중심적 디자인에서 감성적 조형으로의 회귀를 보여준다.

컬렉터블 디자인 플랫폼의 미래

세 번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애플과 협업해 선보인 신진 디자이너 프로그램 '내일의 디자이너'다. 마르코 캄파르도Marco Campardo, 줄리 애 응오Jolie Ngo, 두이 한Duyi Han, 마리 & 알렉상드르Marie & Alexandre 등 네 팀의 젊은 디자이너들은 아이패드를 활용해 디자인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선보였다. 디지털 툴이 디자인 언어를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실험한 것이다. 참여 디자이너들은 아이패드를 통해 스케치와 3D 모델링을 병행하며 작업 속도를 높였고, 시각화한 패턴을 천연 염색 기법과 결합해 수작업 직물을 제작하거나, 가상 공간에서 설계한 도자 형태를 실제 재료로 전환하며 '디지털 수공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애플은 이를 통해 '기술은 디자인의 언어를 확장하는 또 다른 손끝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시도는 '컬렉터블 디자인의 미래 플랫폼'이라는 디자인 마이애미의 지향점과 정확히 부합했다. 그뿐 아니라 신진 디자이너들의 국제적 가시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첨단 기술과 장인의 결합이 단순한 혁신을 넘어 공예적 가치의 확장으로 이어진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본 관객 참여형 작품이 소셜 미디어 시대의 확산성을, 동물 형상이 즉각적인 정서적 연결을 제시했다면, 이번 기술 협업은 제작유통·비평 구조의 변화를 암시한다. 이 세 가지 흐름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리 에디션은 전통적인 디자인 페어의 확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글 양윤정 통신원 담당 김지아 기자



- 1 라파누르 갤러리는 장 프루베의 역사적 작품을 엄선해 선보였다. 프레지당스 책상과 스케치 테이블로 마이애미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진 Ivan Erofeev
- 2 제임스 드 울프의 '공명하는 탁구대'. 사진 Nicky Roding
- 3 호슬러 버로스가 스웨덴 디자이너 프리다 피엘만의 동물 조각으로 채운 전시. 사진 Ivan Erofeev
- 4 제인 양다예네Jane Yang-D'Haene의 '무제(Untitled)'. 사진 Jane Yang D'Haene
- 5 <내일의 디자이너>전. 사진 Elodie Croquet

